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高玉
編輯部長 高玉錫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 第8대 總長 李瑄根박사 就任

## 總和團結로 知性의 最高 殿堂建設

## 教授·學生本位의 大學으로 護國佛教精神 더욱 빛나게

### 25日 中講堂서 就任式 성대히 擧行

사진:李總長

新任 李瑄根총장 취임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金甲洙理事長을 비롯 학계 장관 교수직원·학생과 趙明基 金東益 前總長, 趙成 文敎部長官, 崔慶九 附高 핸드부의 三藩依總理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은 本校師大 山喜亨원장, 閔寬植문교부장관(代讀) 崔慶九同窓會長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어 새총장의 취임을 축복했다.

이날 金理事長으로부터 李總長은 취임사에서 『東國人 모두가 理解·和合, 團結하고, 슬기와 용기와 정성을 합께 기울여 大學發展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한 다음 世界大學의 水準에 이르도록 學校發展과 불교정신 구현에 최대·최선의 노력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金 理事長은 告辭를 통해 李선근박사의 總長취임을 東大發展의 서광이라고 말하고 宗團과 東國學院의 재정적 원태세가 긴요한 課題라고 말했다.

또 閔寬植文敎部長官(趙次官代讀)은 祝辭에서 『이 나라 엘리트 養成에 이바지해온 東國의 傳統을 새 總長의 취임을 계기로 더욱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孫慶山 總務院長은 『崇立東大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을 약속하고 崔同窓會長도 『最大限의 聲援』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李總長취임식에는 敦岡敏 前國會議長을 비롯하여 朴衝普外大學長, 黃山德成大總長署理, 朱水夏 수도여자대學長등 學界의 著名 귀빈이 다수참석, 李總長의 취임을 축하했다.

◇新任 李총장 就任式에 축하 화환및 화분을 보내 주신 분들

▲최덕신 (전도교원) ▲김상협 (고대총장) ▲이인기 (嶺南大총장) ▲한상억 (영남대총장) ▲임원순 (숭대총장) ▲태완선 (부총장) ▲신돈각 (前本校총장) ▲고재필 (보성총장) ▲배두진 (육회장) ▲김상만 (동아일보 사장) ▲곽종원 (건대총장) ▲김성문 (성동그룹회장) ▲기타 다수△以上無順·접수및 祝辭 요지는 2面>

◇제8대총장 李瑄根박사 취임식광경。

### 李總長의 略歷

▲1905年5月 京畿道 開豐郡 出生▲1919年3月 己未獨立運動에 參加▲1922年3月 徽文高普卒業▲1929年3月 早稻田大學 史學科卒業▲1929年4月 朝鮮日報社 入社, 政治部長을 歷任 ▲1929年 普遍學校敎諭 ▲1930年 徽新高等學校敎諭 ▲1945年8月 建國準備委員 ▲1946年 漢城日報社主筆, 編輯局長 및 學術部長 歷任 ▲1947年11月 서울大學校 政治學科 主任敎授로 學生處長 兼任 ▲1950年2月 國防部 政訓局長 ▲1952年2月 陸軍准將으로 예편, 乙支무공훈장, 상이기장받음 ▲1952年11月 檀國大學 學長 ▲1953年3月 韓國政治學會 會長 ▲1953년3월 서울大 文學博士學位 ▲1954년4월 文敎部長官 成均館大學校總長 ▲1957年10月 自由中國 政府주최 金質獎章받음 ▲1959年10月 慶熙大學校 大學院長 ▲1967年3月 慶熙大學校 敎育學化委員會 委員長 ▲1968年8月 自由中國中華學術院서 名譽博士學位 받음。 ▲1969年2月大韓民國文化財委員長(現) ▲1969年2月 韓日協力委員會 文化分科委員長(現) ▲1969年4月 嶺南大總長 ▲1970年10月 慶熙大서 名譽文學博士學位받음 ▲1970年12月 政府로부터 國民敎章 무궁화章받음 ▲1971年6月 美 Ball State 大學校에서 名譽法學博士學位받음 ▲1972年5月 社團法人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會長(現) ▲1972年6月 世界第2次大戰史學會 韓國委員會 委員長 ▲1972年9月 文敎部 國史敎育强化委員會 委員長 ▲1973年2月 日本東京서開催된 韓日協力委員會 韓國自席代表로 參席 ▲1973年7月 社團法人 王仁博士현창회 회장▲1974年10月 文公部 國士開發委員會위원장 ▲1974年5月·16民族賞學藝賞本賞받음。

◇重要著書

◇朝鮮歷史近世史▲花郎道研究▲軍人精神讀本▲建國理念과學生▲韓國獨立運動史▲韓國史(最近世篇)▲韓國史(現代篇)▲民族의 閃光(日語版)▲韓國近代史(中國語版)▲民族의 血脈▲花郎道▲儒敎思想의 概要▲紅衣將軍▲大韓國史(全12권)▲其他主要論著多數

## 李總長 就任辭 全文

### 和合團結과 슬기로 總매진을 世界的大學건설에 總力 부처님 精神으로 佛敎發展도

東大는 佛敎宗立大學이기에 부처님 정신을 받들고 한국불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국의 正統 불교를 더욱 빛내는 「엘리트」양성에도 힘쓰고, 현재 민족문화재의 根幹이 되어있는 불교문화재의 보존, 관리는 물론이고 民族文化의 대표로서 불교를 해외에 선양하고 교류하는 일에도 본인은 미력하나마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東大가 이 나라의 종합대학인만큼 근 70년의 그 역사를 빛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대학의 수준에 이르도록 發展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는데 學大, 敎善의 협조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의 전제아래 본인이 가져온 대학에대한 기본이념을 간단히 피력한면 大學社會의 주인은 교수와 학생인 것입니다。

학교법인도 期成會, 同窓會도 모두 교수와 학생을 위하고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와같은 基本方針아래 우선 교수와 직원 여러분과 학생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여력을 처음 들어서면날, 조금 놀란 사실이 있읍니다。

아직도 東國大學校에는 제대로된 法堂하나가 마련되어있지 않음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이자리를 통해 본인을 우선 우리 東國大學校안에 護國佛敎의 정신을 다음속으로 믿고 받들게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東國大學校 總長으로 무엇을 어떻게할 것인지,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 民族主體史觀 확립에 기여
### 學界·敎育界의 巨星

이 사람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정화운동을 계기로 이미 근 60년의 인연을 가지고 지내오신 이 나라의 元老스님 여러분과 오늘 이 취임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公私多忙하신데도 불구하고 부덕한 날씨에 일부러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학교법인 東國學院의 현이사진 여러분께서 어느덧 四稀에 접어든 본인을 본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해주신점에 본인으로는 과분한 영광과함께 重責을 안겨주신 것이라 믿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우기 평상시 항상 본인이 존경해온 동국학원 이사장이신 김갑수선생께서 東國學院의 나아갈바를 위해 告辭를 해주신데 대해 거듭 현 이사진 여러분께 심심한경의를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나라 史學徒의 한사람으로 三國時代부터 발전되어온 우리民族의 護國佛敎를 평소 좋아하며 연구해 왔읍니다。

따라서 金剛經 서문에서 일렀은대로 「應一塵하되 四大合」할수있는 즉 적게는 눈에 안보이는 티끌에도 부처님의 정신이 깃들어있고, 크게는 온 우주를 부처님의 몸에 안을수있는 부처님의 종합대학인만큼 근 70년의 그 역사를 빛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대학의 수준에 이르도록 發展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는데 學大, 敎善의 협조가 있기 바랍니다。

나의 방침에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지적, 시정시켜 주심으로서 東大의 발전을 위해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정신이 우주의 森羅萬相을 無邊無碍한 大慈大悲의 품속에 和平과 사랑으로 감싸서 濟度하고 敎化하시는데 있는 만큼 이나라 佛敎의 스님여러분께서 심심한경의를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나라 史學徒의 한사람으로 三國時代부터 발전되어온 우리民族의 護國佛敎를 평소 좋아하며 연구해 왔읍니다。

따라서 金剛經 서문에서 일렀은대로 「應一塵하되 四大合」할수있는 즉 적게는 눈에 안보이는 티끌에도 부처님의 정신이 깃들어있고, 크게는 온 우주를 부처님의 몸에 안을수있는 부처님의 종합대학인만큼 근 70년의 그 역사를 빛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대학의 수준에 이르도록 發展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는데 學大, 敎善의 협조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의 전제아래 본인이 가져온 대학에대한 기본이념을 간단히 피력한면 大學社會의 주인은 교수와 학생인 것입니다。

학교법인도 期成會, 同窓會도 모두 교수와 학생을 위하고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와같은 基本方針아래 우선 교수와 직원 여러분과 학생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여력을 처음 들어서면날, 조금 놀란 사실이 있읍니다。

아직도 東國大學校에는 제대로된 法堂하나가 마련되어있지 않음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이자리를 통해 본인을 우선 우리 東國大學校안에 護國佛敎의 정신을 다음속으로 믿고 받들게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東國大學校 總長으로 무엇을 어떻게할 것인지,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 李總長의 略歷

▲1905年5月 京畿道 開豐郡 出生▲1919年3月 己未獨立運動에 參加▲1922年3月 徽文高普卒業▲1929年3月 早稻田大學 史學科卒業▲1929年4月 朝鮮日報社 入社, 政治部長을 歷任 ▲1929年 普遍學校敎諭 ▲1930年 徽新高等學校敎諭 ▲1945年8月 建國準備委員 ▲1946年 漢城日報社主筆, 編輯局長 및 學術部長 歷任 ▲1947年11月 서울大學校 政治學科 主任敎授로 學生處長 兼任 ▲1950年2月 國防部 政訓局長 ▲1952年2月 陸軍准將으로 예편, 乙支무공훈장, 상이기장받음 ▲1952年11月 檀國大學 學長 ▲1953年3月 韓國政治學會 會長 ▲1953년3월 서울大 文學博士學位 ▲1954년4월 文敎部長官 成均館大學校總長 ▲1957年10月 自由中國 政府주최 金質獎章받음 ▲1959年10月 慶熙大學校 大學院長 ▲1967年3月 慶熙大學校 敎育學化委員會 委員長 ▲1968年8月 自由中國中華學術院서 名譽博士學位 받음。 ▲1969年2月大韓民國文化財委員長(現) ▲1969年2月 韓日協力委員會 文化分科委員長(現) ▲1969年4月 嶺南大總長 ▲1970年10月 慶熙大서 名譽文學博士學位받음 ▲1970年12月 政府로부터 國民敎章 무궁화章받음 ▲1971年6月 美 Ball State 大學校에서 名譽法學博士學位받음 ▲1972年5月 社團法人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會長(現) ▲1972年6月 世界第2次大戰史學會 韓國委員會 委員長 ▲1972年9月 文敎部 國史敎育强化委員會 委員長 ▲1973年2月 日本東京서開催된 韓日協力委員會 韓國自席代表로 參席 ▲1973年7月 社團法人 王仁博士현창회 회장▲1974年10月 文公部 國士開發委員會위원장 ▲1974年5月·16民族賞學藝賞本賞받음。

◇重要著書

◇朝鮮歷史近世史▲花郎道研究▲軍人精神讀本▲建國理念과學生▲韓國獨立運動史▲韓國史(最近世篇)▲韓國史(現代篇)▲民族의 閃光(日語版)▲韓國近代史(中國語版)▲民族의 血脈▲花郎道▲儒敎思想의 概要▲紅衣將軍▲大韓國史(全12권)▲其他主要論著多數

## 教授·學生本位의 大學으로 護國佛教精神 더욱 빛나게

### 25日 中講堂서 就任式 성대히 擧行

新任 李瑄根총장 취임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金甲洙理事長을 비롯 학계 장관 교수직원·학생과 趙明基 金東益 前總長, 趙成 文敎部長官, 崔慶九 附高 핸드부의 三藩依總理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은 本校師大 山喜亨원장, 閔寬植문교부장관(代讀) 崔慶九同窓會長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어 새총장의 취임을 축복했다.

이날 金理事長으로부터 李總長은 취임사에서 『東國人 모두가 理解·和合, 團結하고, 슬기와 용기와 정성을 합께 기울여 大學發展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한 다음 世界大學의 水準에 이르도록 學校發展과 불교정신 구현에 최대·최선의 노력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金 理事長은 告辭를 통해 李선근박사의 總長취임을 東大發展의 서광이라고 말하고 宗團과 東國學院의 재정적 원태세가 긴요한 課題라고 말했다.

또 閔寬植文敎部長官(趙次官代讀)은 祝辭에서 『이 나라 엘리트 養成에 이바지해온 東國의 傳統을 새 總長의 취임을 계기로 더욱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孫慶山 總務院長은 『崇立東大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을 약속하고 崔同窓會長도 『最大限의 聲援』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李總長취임식에는 敦岡敏 前國會議長을 비롯하여 朴衝普外大學長, 黃山德成大總長署理, 朱水夏 수도여자대學長등 學界의著名 귀빈이 다수참석, 李總長의 취임을 축하했다。

◇新任 李총장 就任式에 축하 화환및 화분을 보내 주신 분들

▲최덕신 (전도교원) ▲김상협 (고대총장) ▲이인기 (嶺南大총장) ▲한상억 (영남대총장) ▲임원순 (숭대총장) ▲태완선 (부총장) ▲신돈각 (前本校총장) ▲고재필 (보성총장) ▲배두진 (육회장) ▲김상만 (동아일보 사장) ▲곽종원 (건대총장) ▲김성문 (성동그룹회장) ▲기타 다수△以上無順·접수및 祝辭 요지는 2面>

◇제8대총장 李瑄根박사 취임식광경。

### 李總長의 略歷

▲1905年5月 京畿道 開豐郡 出生▲1919年3月 己未獨立運動에 參加▲1922年3月 徽文高普卒業▲1929年3月 早稻田大學 史學科卒業▲1929年4月 朝鮮日報社 入社, 政治部長을 歷任 ▲1929年 普遍學校敎諭 ▲1930年 徽新高等學校敎諭 ▲1945年8月 建國準備委員 ▲1946年 漢城日報社主筆, 編輯局長 및 學術部長 歷任 ▲1947年11月 서울大學校 政治學科 主任敎授로 學生處長 兼任 ▲1950年2月 國防部 政訓局長 ▲1952年2月 陸軍准將으로 예편, 乙支무공훈장, 상이기장받음 ▲1952年11月 檀國大學 學長 ▲1953年3月 韓國政治學會 會長 ▲1953년3월 서울大 文學博士學位 ▲1954년4월 文敎部長官 成均館大學校總長 ▲1957年10月 自由中國 政府주최 金質獎章받음 ▲1959年10月 慶熙大學校 大學院長 ▲1967年3月 慶熙大學校 敎育學化委員會 委員長 ▲1968年8月 自由中國中華學術院서 名譽博士學位 받음。 ▲1969年2月大韓民國文化財委員長(現) ▲1969年2月 韓日協力委員會 文化分科委員長(現) ▲1969年4月 嶺南大總長 ▲1970年10月 慶熙大서 名譽文學博士學位받음 ▲1970年12月 政府로부터 國民敎章 무궁화章받음 ▲1971年6月 美 Ball State 大學校에서 名譽法學博士學位받음 ▲1972年5月 社團法人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會長(現) ▲1972年6月 世界第2次大戰史學會 韓國委員會 委員長 ▲1972年9月 文敎部 國史敎育强化委員會 委員長 ▲1973年2月 日本東京서開催된 韓日協力委員會 韓國自席代表로 參席 ▲1973年7月 社團法人 王仁博士현창회 회장▲1974年10月 文公部 國士開發委員會위원장 ▲1974年5月·16民族賞學藝賞本賞받음。

◇重要著書

◇朝鮮歷史近世史▲花郎道研究▲軍人精神讀本▲建國理念과學生▲韓國獨立運動史▲韓國史(最近世篇)▲韓國史(現代篇)▲民族의 閃光(日語版)▲韓國近代史(中國語版)▲民族의 血脈▲花郎道▲儒敎思想의 概要▲紅衣將軍▲大韓國史(全12권)▲其他主要論著多數

## 理事長에 金甲洙博士

### 東國學院 理事會

學校法人 東國學院理事會는 지난 6월19일 오후3시 第1회 임시理事會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金甲洙박사를 선출, 同20일에 文敎部승인을 받았다。이날 이사회석는 前 徐燉珏總長의 사표를 수리했다。

東國學院理事會 理事長에 就任한 金甲洙박사는 1950년대에 法敦大 교수와 法敦大學長을 역임한 法曹界의 원로이다。

金理事長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京畿道安城出身▲1935년 京城大學 法文學部卒業▲1935년 高試司法科合格▲1937년 平壤地方法院 判事▲1945년 서울大敎授▲1949년 法務部次官▲1950년 內務部次官▲1953년 東大法政大學長▲1960년 第5代 民議院議員 被選▲1966년 東大서 명예法博▲1968년 學校法人 京畿學園理事長▲1973년 慶熙苑名譽理事長▲1974년 現 東國學院理事長

## 「프로젝트·74」성료

### 雪嶽山, 洛山別莊등서 民族主體意識 確立열띤 討論

「길을 열어는 코끼리」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敎養學部의 「프로젝트 74」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주일간 교직원·학생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內外雪嶽山 東雨莊에서 개최되었다。

작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프로젝트74」 출발에 앞서 李瑄根신임총장은 『花郎精神을 이어받아 東國中興에 이바지할 「리더」로서의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李元燮교양학부장의 총지휘로 각서클의 長및 各科 대표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학생활동과 民族主體意識」이다。

참가자들은 禮佛동 불교의식과 지도교수의 교양강좌, 그리고 해상훈련등을 통해 인격수양등 리더로서의 자질을 익히게된다。

금년으로 9회째 접어든 「워크숍」은 지난 8회까지 총 4백76명을 수료시켜 졸업생을 거둔바있다。

※지도교수및 지도위원 명단(괄호안은 교양강좌 논제)

◇지도교수

▲李瑄根총장▲金二鴻교무처장(학생활동과 민족주체의식)▲金聖培상담부장(바람직한 학생활동의 파제)▲張庚鶴법정대학장(대학에 있어서의 학생의 지위와 역할)

◇지도위원

▲羅彦彬학생과장 ▲朴在憲(괄호안은 교양강좌 논제)

◇지도후원

▲金聖培(국교과)박사=국어운동학생회 지도교수로서 同「클럽」동촌 봉사 활동을 시찰하고 7월29일부터 계봉사에 참가。

8월5일부터 10일까지는 울릉도 방언및 민속자료수집차 답사예정。

오른은 「한국민속 메김노래집」및 「국어교육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員滋興(통계과) 敎授=지난 1일(금) 종대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구의 經濟분포에 대해」주제 논문발표。

▲李乘東(농경과) 교수=74년도 전국대학생 농촌봉사단의 농가소득증대분과의 農經과장으로 위촉됐다。

▲閔泰顯(社學敎育社) 전임강사=7월13일 12시 이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 敎授動靜

▲金聖培(국교과)박사=국어운동학생회 지도교수로서 同「클럽」동촌 봉사 활동을 시찰하고 7월29일부터 계봉사에 참가。

8월5일부터 10일까지는 울릉도 방언및 민속자료수집차 답사예정。

오른은 「한국민속 메김노래집」및 「국어교육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員滋興(통계과) 敎授=지난 1일(금) 종대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구의 經濟분포에 대해」주제 논문발표。

▲李乘東(농경과) 교수=74년도 전국대학생 농촌봉사단의 농가소득증대분과의 農經과장으로 위촉됐다。

▲閔泰顯(社學敎育社) 전임강사=7월13일 12시 이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 受講申請·登錄 8月26~31日
## 2學期 學事日程 확정

2학기 등록은 8월26일(월)부터 31일(土)까지이며, 8월26일(月)부터 31일(土)까지에 따르면 또 수강신청은 동기간내에 동록을 필한 학생만이 수강신청을 할 수있다。

한편 결리과에 의하면 2학기 등록금은 1학기와같은 정도인것으로 알려졌다。

개강은 9월2일부터이며 復學및 再入學事務는 9월1일부터 21일까지이다。

하기방학을 맞아 각 서클은 전국각지에서 奉仕活動을 활발히 전개하고있고 교양학부프로젝트「리더쉽 워샵」등 夏期修練大會도한 창이다。

교무처(처장=김인홍)에서는 學慶長회의를 거쳐 74년도 제2학기 學事日程을 발표했는데, 2학기 동록기간은 8월26일(月) 부터 31일(土)까지이다。

◇美國의 Dale Caknegie「코스」를 방불케하는 우리말「코스」!


# 스피치 대강좌

— 당신은 對話에 不安을 느끼지 않습니까? —

원고작성 | 언어교정반 | 응변반 | 「스피치 반」

본 연구원에서는 인사말, 식사연설, 응변, 취지문등 각종원고를 24시간내에 작성 제공하고 있읍니다。

특히 응변대회에 출전하실 분이나 「지도자로서의 스피치 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말더듬, 발표력 부족으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분을 위해 음성교정에서 유모어, 사교대화, 인사법, 대인화술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대화」를 책임 교정함。

전국웅변대회, 토론대회및 학술세미나, 모의국회 등에 출전할 연사를위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등 50여회이상 수상한 권위강사진이 책임지도함。

대학생및 성인을 위해 음성교정, 인사법, 사교대화에서부터 토론, 좌담, 회의, 「테이블 스피치」, 사회진행, 리더쉽, 훈시법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화법을 연구함。

김양호 院長著「스피치 大講座」4판 발매중! (국판 P 382 값 1,200원)

늦었다고 생각한때가 가장 빠른때다!

한국언어문화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16 정금빌딩(대한극장옆)
상담실 ☎ (27) 8430

당신은 「對話에 不安」을 느끼지 않읍니까?

□ 초면의 「인사」에서 호감받는 「사교대화」 「대중연설」까지!

문의 전화는 29—1016 27—8430번으로…

약도
본원 대한극장 버스정류장 육교 3·1회계로 진양아파트

발 ㊒ 전
제8대 총장
이선근박사취임

한국언어 문화원
원장 김 양 호


## 「青年奉仕」

이는 우리의 山河, 녹음의 향기와 생명의 환희가 작약하고 있다。自然 그것인가。

그럼에 옷해처럼 많은 과대학동 총 1백69개교 대학생봉사대원이 전국 8개 도서 남학생 1만3천7백12명, 여학생 9천4백98명 모두 2만3천2백96명이 참가하여 指導敎授만 50여명이나 참가하여 학생봉사대원과 同苦同樂의 나날을 보낸다。

여름휴가를 통하여 고적을 답사하거나 농산을 하거나 갯벌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수다한 방법으로 휴가를 선용한다。

이와같은 현실에 까지 오게 된것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야할 것인가에 대한 自我意識이 싹트기 한이 없는 가하면, 그 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自己省察이 없는 것이다。

조국에 드리는 祈拜요, 奉仕의 손길이다。74년도 할 의지를 가지려고 이 여름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옷해처럼 많은 대학생이 더 나아가 祖國意識의 開眼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더 넘은 의미로 인간이 自然과 同一意識을 느끼는 一心의 활용이야 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同體大悲의 사상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제일의적인 위치에서 비롯하는 보살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갈라진 祖國의 山河에 목길을 돌리는 저 젊음의 기상。

벽촌의 마을에 새길을 놓는 저 젊은이의 힘찬 손길위에 慈悲와 敎援의 길이 환히 열려져 갈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에 까지 오게 된것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야할 것인가에 대한 自我意識이 싹트기 한이 없는 가하면, 그 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自己省察이 없는 것이다。갈라진 祖國의 山河에 목길을 돌리는 저 젊음의 기상。

벽촌의 마을에 새길을 놓는 저 젊은이의 힘찬 손길위에 慈悲와 敎援의 길이 환히 열려져 갈것이다。

睦哲宇 ◇

## 今週一言

爲所不當爲, 然後致鬱毒. 行善常吉順, 所適無悔怖.

해서 안될 일은 행하지 말라. 한뒤에는 번민이 있나니, 해야할 일은 항상 행하라. 가는 곳 마다 뉘우침이 없다.

<法句經>

## 宋榮起君最優秀賞 11회 反共辯論大會

지난 6월21일 제11회 反共聯盟 이승만 大統領 賞牌爭奪 전국남녀 반공웅변대회에서 宋榮起(공경·3)군이 學生部 最優秀賞인 문화공보부장관賞을 受賞했다。

## 本社 辭令

高玉錫(資易·3)任 編輯部長
安正勳(史學·3)任 取材部長
金厚錫(經行·3)任 特輯部長
朴珍錫(英·3)任 6월16일字 <以上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1개월간圖書出納을 중지한다。>
尹太京(國文·4)免 編輯部長
朴男濬(國文·4)免 取材部長
<以上 任期滿了>

## 譯經院, 創立열돌 기념 65輯 發刊

### 한글대장경

본원은 66년부터 문교부의 古典國譯事業의 하나로 한글大藏經의 飜出, 高僧의 文集發刊, 譯著發表會 진행등 2大事業을 진행중이다。

本院은 4대총장 故김법린박사가 설치, 그동안 65년을 법령했으며 서산대사등 7인의高僧文集을 간행했다。

◎고려대장경의 목록간행 ◎고려대장경의 분석적 연구 ◎조선왕조실록 국역 ◎불교사전 편찬 ◎한국불교전서 편찬 ◎불교학술지 발간 ◎불교학술원 설립 ◎불교학술상 제정 ◎불교학술총서 제2권(華嚴經註解·李恒伯역) 3권(圓覺經註解·金月雲역) 4권(金剛經註解) 5권(起信論註解) 을 연말내로 완간하여 연간약 1천2백만원의 법역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72년부터정기간행물을 비롯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에 年4회정도를 법령했으며 석산대사등 7인의高僧文集을 간행했다。

본원은 66년부터 문교부의 古典國譯事業의 하나로 연간약 1천2백만원의 법역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72년부터정기간행물을 비롯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에 年4회정도를 법령했으며 석산대사등 7인의高僧文集을 간행했다。

本院은 4대총장 故김법린박사가 설치, 그동안 65년을 법령했으며 서산대사등 7인의高僧文集을 간행했다。

◎고려대장경의 목록간행 ◎고려대장경의 분석적 연구 ◎조선왕조실록 국역 ◎불교사전 편찬 ◎한국불교전서 편찬 ◎불교학술지 발간 ◎불교학술원 설립 ◎불교학술상 제정 ◎불교학술총서 제2권(華嚴經註解·李恒伯역) 3권(圓覺經註解·金月雲역) 4권(金剛經註解) 5권(起信論註解) 을 연말내로 완간하여 연간약 1천2백만원의 법역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72년부터정기간행물을 비롯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에 年4회정도를 법령했으며 석산대사등 7인의高僧文集을 간행했다。

## 放學中貸出中止 열람실은계속開館

本校 中央圖書館(館長=朴珍錫)은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1개월간圖書出納을 중지한다。

도서대출중지와 관계없이 열람실은 계속 개관되며 참고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토요일도同一) 공휴일은 휴관한다。

2학기 학술참고열람실은 8월27일부터 1개월간이다。

## 辭令

高玉錫(資易·3)任 編輯部長
安正勳(史學·3)任 取材部長
金厚錫(經行·3)任 特輯部長
朴珍錫(英·3)任 6월16일字 <以上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1개월간圖書出納을 중지한다。>
尹太京(國文·4)免 編輯部長
朴男濬(國文·4)免 取材部長
<以上 任期滿了>

# 李總長의 就任을 祝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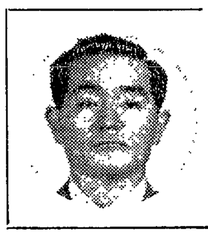
## 社說

광간의 雜音과는 달리 우리大學은 지극히 平靜하고和氣속에서 조용히 躍躍하는學園으로의 轉換이 이루어 졌다。오늘 우리가 마지막계된 總長就任의 盛典이 엊기까지에는 오로지 學園의 不幸한 事態招來를 미리 막기위한 一念에서의 前總長의 勇退決意라는 高貴한 自己犧牲과 또 學界와 國民指導에 責任感을 주하신 新任總長께서 吉稀의 高齡답지 않은 情熱로서 餘生을 오로지 本大學의 健全한 發展에 獻身할것을 다짐하고 總長職의 重責을 快諾하신데서 열게된 本大學의 貴重한 慶事였다。

이제 本大學中興이라는 벅찬 課業에 서 그 가시발길은 險路의 길잡이가될 것을 快諾하고 內外貴賓과 全東國人앞에서 就任辭를 通하여 밝힌 本大學運營에 대한 新總長의 所信을살펴보면① 佛敎宗立大學인本大學의 建學理念을받들어 우리의 전통의精神的基盤으로서의 韓國佛敎의 發展에 기여하는 同時에 ② 國家民族과 世界平和를 窮極의 使命으로하고있는 本大學을

# 宗祖·宗旨·宗統에 대하여

李鍾益(佛教大교수·曹溪學研究所長)



무릇한 敎祖·敎理·敎徒의 3대요소가 갖추어져야 宗團이 성립되는데는 반드시 敎祖·敎理·敎徒의 3대요소가 갖추어져야 宗團이 성립되는 것이다。한 宗統의 성립에는 역사적 사실로서 道義·太古·普照·曹溪·九山·迦智·梵魚·碧松·鞭羊·芙蓉·清虛·泗溟·鞭羊·芙蓉·清虛·泗溟·鞭羊·芙蓉·清虛·泗溟

# 東國의 當面課題

▲司會=國內大學은 인습적으로 굳어진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一新하여 理想的인 대학교육의 本質로서 새로운 實驗大學(縣本 또는 先導학교)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농업별종업제등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읍니다。

한편 校內的으로는 최근 財團분류로 인한 官選理事의 취임, 徐總長이 사임하고 李秉根박사가 25일 제8代總長에 취임하게 되었읍니다。이와같이 對內外的으로 격변기에 처한 우리 東大는 그 어느때보다도 衆智와 總和團結이 요구되며 中興의 活路를 찾을수 있는 一大轉機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敎授·學生 좌담회는 실험대학문제와 敎授·學生社會의 문제, 大學行政과 財團의 자율등 대학의 구성원여러분이 평소에 느껴오신 바를 자유롭게 나누고자 마련했읍니다。

몇몇대학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모델스쿨은 우리 대학에서 文敎부터 經商大學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이에따라 실험대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서둘고 있읍니다。먼저 실험대학과 농업별종업문제를 말씀하시기로 하죠。

## 實驗大學과 能力別 卒業

▲李龍範=實驗大學은 창설과 단절을 함께 지니고 있읍니다。初·中·高의 추입식교육에서 자기스스로 들 계발하는 제발식교육은 바람직한 형태입니다。그러나 우선 시설문제가 앞서야 합니다。졸업학점이 1백60학점제에서 1백40학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같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의 장서와 실험실습등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助敎만 하더라도 1개대학에 3, 4명 정도는 더 증원되어야 합니다。大學의財力으로 과연 이런한 시설확장등이 가능할수 있는가를 생각할때 상당한 준비와 신중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럼 大改革은 長期의 여유를 두고 고려해야할 것입니다。세심한 검토없이는 오히려 학생들에게안 일주의만 조장하는 결과마저 우려됩니다。특히 우리大學 도서관의 도서 購入형편만 보더라도 실험대학을 이상적인 교육개혁이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읍니다。

## 大改革은 長期檢討 要해

▲金直泰=李교수의 말처럼 기본자세가 문제라고생각됩니다。시설이 재학추진에서 先決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閔丙天=문제는 必要性, 당위성과 현재의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것이겠죠。당위성이 현실에 용해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법이니까요。能力別졸업을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大學에 있어서는 3학년 졸업이 가능할지 몰라도 大學院을 학부와달라서 전문지식의 터득이 1년만에 가능할 것인지의심스럽습니다。

▲李敏昌=李龍範교수와 동감입니다。施設面에서 우리학교는 1백60학점에 맞는 시설부터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내년에 經商大學부터 실시 연차적으로 확대할 모양인데, 一例를들어 교수가 과제를 부과하는데는 적어도 학생에게 10권이상의참고서적이 필요하게됩니다。교수상의에 따르는 도서 資料가 국내에서 얼마나 충분되고 있으며, 그것을 취득할 만한 학생의 재력을 충분한가의 여부도 문제입니다。

能力別 卒業制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그렇지만 1학년 과정에서는 써머·스쿨을 개설하여 3학년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鎔貞=원칙적으로 能力別卒業制度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外國에도 천재·수재를 따로 分類하여 교육하는 경우는 있읍니다。그러나 「유니버시티」라는 有機體에서 평등을 외면할순 없읍니다。實力에 앞서 人間을 論해야 하지요。오히려 두되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長期敎育을 통한 凡宇宙的人間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이것이바로 大學의 本質입니다。

▲司會=대학교육은전적으로 천재·수재를 따로 分類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을 균등하게 지도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鎔貞=학생들이 너무 인적인 책임감 인식이 없다는 점도 있지만 제1주의가 사회적인 현실이니까 하는수없는 얘기 아니겠어요?(일동웃음)

▲司會=대학생의 指向性으로 본 학생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로하고 대학생과 교양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요。

▲金鎔貞=교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全人的인간의 형성이라는 뜻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로 볼때 첫째, 독서를 해야합니다。독서를 함으로써 우선 풍부한 先驅者들의 思考를 통한 자기를 형성할수 있어야합니다。오즈을 학생들은 학생자신들의식인 학교신문조차도 잘 읽지를 않습니다。詩人을 꿈 인간이어야 합니다。그렇지만 허구가 허위에 머물러 있을때 그 문학인은 추방 되어야 당연합니다。

▲司會=이제 교수사회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물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학교 교수들은 가장 자유로운 풍토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사실 이와같은 자유는 바람직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전제하는 자유라고 생각할수있읍니다。교수·학생간의 대화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문제는 學生들이 엄마만큼 교수에게 학구적인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 教授는 待遇改善과 學生態度와에

▲金直泰=교수가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대학뿐 아니라 다른 大學도 그렇게 돼야할 것 같습니다。물론 발전이어서는 안되겠지요。교수들에게 충분한 보수, 안정된 施設이 제공되어 硏究분위기만 조성되면 노는 교수는 없을 줄압니다。그리고 다른大學으로 가라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李敏昌=6, 7년을 두고 보았을때 필요하여서 스카웃해 온 교수數와 스카웃당한 數를 비교해보면 스카웃당한 숫자는 10여명이 넘는데 비해 스카웃해온 교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그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교수 처우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약 처우 문제와 연구시설이 개선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전공분야도 많이 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閔丙天=제자신이 교수의 입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기 곤란하지만 자유가 많다는 意味는 敎職이 확보되었을을 意味한다고 생각합니다。자유가많을수록 자유지제로 연구할 수 있는 교수도 있고 반대인 교수도 있겠읍니다。교수풍토의 刷新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硏究환경을 개선해 주어야하며 보수문제와 實質生活問題가 선결되어야 하겠읍니다。실적주의가 아니면 하는자와 안하는 자는 똑같아지게 취급되게 될뿐입니다。

이러한 國家社會에 대한 奉仕精神, 또는 人生觀은 어느정도 전공하게 돼야 확립이 이루어지겠어요? 엘리트 意識은 최소한 갖춰진 학생들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사람들입니다。금년부터 경우만 하더라도 20만의 고등학교 졸업자중 겨우 5만의 학생만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읍니까。

▲金鎔貞=오즈음 학생들에게는 내면적인 멋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제가 말하는 멋은 물론 아까 閔박사님께서 敎授指向的학생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겨개의 行政을 학생의추보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李敏昌=저는 다시 공부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學點制度가 더 엄격해 진다면 학생들이 공부안하고는 못배겨갈거니다。학점이 미달되어 졸업을 보류시키겠다는데 어떤학생이겠어요? 그 좋은 예를 李龍範교수께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李龍範=학생들에게 學點에 대한 위압감을 주었더니 역시 철저한 좋아지는것 같던군요。본교의에도 제가 강의나가고 있는 속위 일부 대학이라는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 한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평균 뛰지도 않고 있을 나가。下級學年으로 上級學年으로 갈수록 점점 실력의 폭은 좁혀져가는 현상을 나타내지요。담임을 비교해보면 곧알수있어요。

▲金直泰=사실 저는 2, 3명정도밖에 學點을 내보내지않고 있읍니다。약간 장압적인 방법인것 같지만,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李敏昌=그러한 제도가 없이 시험되어야겠지요, 면학풍토를 조성할수 있다면요。

## 공부안하면 學點 안줘야

▲金直泰=학생들이 너무 이기적인 책임감 인생관이 정립돼 있지가 않아요。

▲李龍範=그것야 경제 제1주의가 사회적인 현실이니까 하는수없는 얘기 아니겠어요?(일동웃음)

▲司會=대학생의 指向性으로 본 학생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로하고 대학생과 교양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요。

▲金鎔貞=교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全人的인간의 형성이라는 뜻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로 볼때 첫째, 독서를 해야합니다。독서를 함으로써 우선 풍부한 先驅者들의 思考를 통한 자기를 형성할수 있어야합니다。오즈을 학생들은 학생자신들의식인 학교신문조차도 잘 읽지를 않습니다。詩人을 꿈 인간이어야 합니다。그렇지만 허구가 허위에 머물러 있을때 그 문학인은 추방 되어야 당연합니다。

▲司會=이제 교수사회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물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학교 교수들은 가장 자유로운 풍토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사실 이와같은 자유는 바람직하지만 자유는 책임을 전제하는 자유라고 생각할수있읍니다。교수·학생간의 대화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문제는 學生들이 엄마만큼 교수에게 학구적인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 教授社會의 問題

▲李龍範=가장 자유를 누릴수있는 분이 우리학교입니다。심지어 권강을해도 제재가 없을정도입니다。여기에서 얻어지는 자유를 善用할수 있겠으면 좋겠으나 자유의 한계개념인 방종이 나오게 됩니다。교수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트리는 동문도 없지않습니다。저는 그 요인을 첫째로 보고있읍니다。

첫째 영의 논 가지고 있으나 시설, 도서등의 여건이 불충실하고, 둘째 교수자신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으며 자금은 많이 수정되었지만 필요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는 탓이라고 할수있읍니다。

교수·학생간의 대화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문제는 學生들이 엄마만큼 교수에게 학구적인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司會=學生들의 見解는 어떤가요?

▲朴大錫=中·高부터 평준화를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大學에서 能力別 卒業制를 실시하겠다는 論理的으로 모순이 된것 같더라도 社會人門과정에서부터 낙오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金直泰=能力別졸업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경우로 成이죠。

▲金鎔貞=교수의 質的向上을 위해서 現代에 적합한 學者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그러나 英國과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개大文系大學이 공업지대에세워져있는게죠。한마디로 말한다면 학생들은 千篇一律的인전문대적 교육을 탈피하여 現代에 적응할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 大學에서 平等外面못해

▲司會=學生들의 見解는 어떤가요?

▲朴大錫=中·高부터 평준화를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大學에서 能力別 卒業制를 실시하겠다는 論理的으로 모순이 된것 같더라도 社會人門과정에서부터 낙오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金直泰=能力別졸업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경우로 成이죠。

▲金鎔貞=교수의 質的向上을 위해서 現代에 적합한 學者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그러나 英國과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개大文系大學이 공업지대에세워져있는게죠。한마디로 말한다면 학생들은 千篇一律的인전문대적 교육을 탈피하여 現代에 적응할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貞鎔金, 敏昌李, 天丙閔, 泰永金, 赫東宋, 範龍李 교수, 左에서 右로 談會광경 : 正面으로부터 왼쪽으로 李龍範교수, 閔丙天교수, 李敏昌교수, 金鎔貞 座교수, 金直泰교수, 宋東赫교수 學生들에게 有機的인 강의를 베풀기가 더욱 힘들어 진다는 思考方式을 고쳐야 할것입니다。

▲司會=學生들의 見解는 어떤가요?

▲朴大錫=中·高부터 평준화를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大學에서 能力別 卒業制를 실시하겠다는 論理的으로 모순이 된것 같더라도 社會人門과정에서부터 낙오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金直泰=能力別졸업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한 경우로 成이죠。

▲金鎔貞=교수의 質的向上을 위해서 現代에 적합한 學者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그러나 英國과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개大文系大學이 공업지대에세워져있는게죠。한마디로 말한다면 학생들은 千篇一律的인전문대적 교육을 탈피하여 現代에 적응할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 圖書는 施設확보 先決條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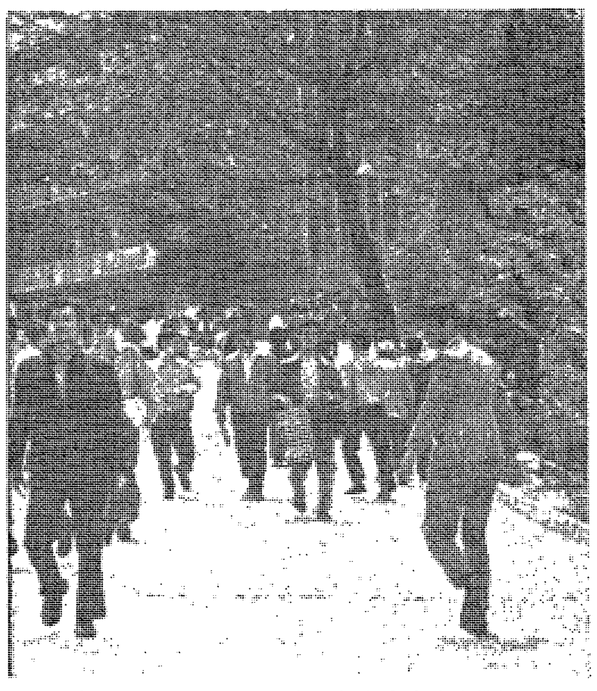
## 大學改革

### 「能力別」보다 人間敎育 重視해야

### 副專攻制타당, 敎授陣强化를

<李龍範교수> <李敏昌교수> <金鎔貞교수> <閔丙天교수> <金直泰교수>

# 教授·學生座談會



# 教養指向型 學生 바람직

## 學生像

### 讀書로 內面의 「멋」, 全人的 人間형성

### 國家·人生觀 確固히, 엘리트 意識도

▲司會=社會의 學校 수준에 대한 척도가 司法試驗이나 國家試驗의 合格者數로 이루지는 것을 오류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에도 司試를 비롯한 이른바 최고의 登龍 試驗에 1, 2名의 합격자가나오지 않았읍니까。하지만 역시 重視되어야 할것은 학생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바람직한 學生像

▲司會=바람직한 學生像에대해 말씀을 나눠보죠?

▲閔丙天=저는 학생을 크게 네가지 類型으로 나눕니다。자기 專攻에만 全力하는 學點 指向型, 大學의 目的意識을 直視하여 생활함 줄 아는 교양지향형, 학생회 活動이나서클활동에 더부분의 학교생활을 할애하는 활동 지향형,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극지향형으로 나눕니다。(모두 폭소)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학생상은 두번째의 교양지향형이라 봅니다。첫째번의 학점지향형도 學究意識에서 볼때는 바람직 하지만 專攻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大學院에서 取得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때문에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現在보다 전공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에 더한 配點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 敎養指向的 學生型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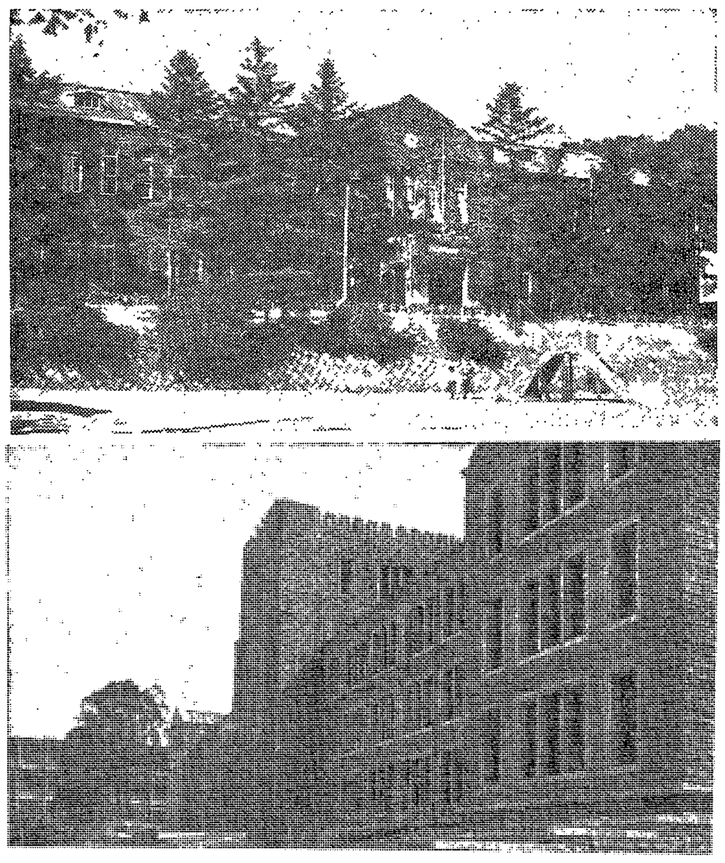
▲李龍範=학생지질로부터 27년간을 우리학교에 몸담아 왔지만, 오즈음 학생들이 學業에 소홀하다는 말을 아프게만 들린 않습니다。비단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고있는 몇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大學生이란 시대의 첨단을 걷는 학생이라는 점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大學에 들어올 이상 학교 차원으로 확대할 모양인데, 一例를들어 교수가 과제를 부과하는데는 적어도 학생에게 10권이상의참고서적이 필요하게됩니다。교수상의에 따르는 도서 資料가 국내에서 얼마나 충분되고 있으며, 그것을 취득할 만한 학생의 재력을 충분한가의 여부도 문제입니다。

能力別 卒業制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그렇지만 1학년 과정에서는 써머·스쿨을 개설하여 3학년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鎔貞=원칙적으로 能力別卒業制度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外國에도 천재·수재를 따로 分類하여 교육하는 경우는 있읍니다。그러나 「유니버시티」라는 有機體에서 평등을 외면할순 없읍니다。實力에 앞서 人間을 論해야 하지요。오히려 두되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長期敎育을 통한 凡宇宙的人間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이것이바로 大學의 本質입니다。

▲司會=대학교육은전적으로 천재·수재를 따로 分類하여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을 균등하게 지도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

# 轉換期에 처한 한 大學發展을 위한



◇사진 : (上)은 本校前身인 舊意化專門校舍이며 (下)는 現 石造館建物.

## 研究指向型이 理想的

-教授像-

## 研究實績과 支援、教授會議 重視

## 非俗的인 研究指向型 教授 존경

## 大學은 人類良心의 堡壘

### 바람직한 教授像

大學은 人類良心의 보루

▲司會=그럼 問題를 좀 바꿔서 이상적 교수상으로 바람직한 교수상이라면 대체로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통적인 스승의상과도 결부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만…

▲金鎔貞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金鎔貞=앞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생각이 아마 보수적이어서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대학은 진리의 전당 즉 인류양심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데 現代의 物質主義又明下에서 배금주의가 유행하고 있다는 미명때문에 교수사회에서까지 뭔가 지켜져야 할것이 분명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같은 불안한 어떤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역시 教授社會의 양심은 자꾸 지켜져야한다는것이 學問的으로나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學生, 더 거슬러 올라가서 大學經營者에게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는 어디까지나 師表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인류양심을 지킬줄만 안다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바람직한 교수는 기본적인 「良心」을 가져야 한다고 내세우고 싶습니다.

▲姜基榮=제가 學生의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教授님이라면 가장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평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고자함에 그러나 학생이 교수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보는 눈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을 네 部類로 분류하셨는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매스콤시대에는 특수한 분야의 교수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思考力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느 특수한 분야에만 몰두하여 연구하는 것보다 도리어 폭넓은 교양을 쌓아 학생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司會=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스콤시대에는 대체적으로 교수상이 변질되고 있다는 말도 자주 듣곤합니다. 지식이 비중이 사실 학생들의 교수상은 外部社會에서 보는 것과 내부의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李盛昌=學生들이나 교수像에는 거의 공통적인 기인 것같습니다. 만약 教授들이 모두 研究指向型이 된다해도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朴大錫=가끔 학생들을 만나면 이는 가장 대체로 높지않은 교수들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수가 차지하는 立場에 놓인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司會=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스콤시대에는 특히 어느 특수한분야에만 몰두하여 연구지향형교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教師로서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朴大錫=가끔 학생들을 만나면 이는 가장 대체로 높지않은 교수들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수가 차지하는 立場에 놓인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매스콤시대에는 특히 어느 특수한분야에만 몰두하여 연구지향형교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教師로서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유재엽=제생각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것이 아니고 思考力에 손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보면 입장에서는 權力指向型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스콤시대에는 교수들이 學問에만 몰두하여 연구지향형교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教師로서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유재엽=제생각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것이 아니고 思考力에 손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보면 입장에서는 權力指向型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스콤시대에는 교수들이 學問에만 몰두하여 연구지향형교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教師로서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李龍範=물론입니다. 생각해보시오. 교수들이 모두 박박하다면 학교에 옳수있는 학생은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교수나 학생이나 제각기 특색을 가진 개성적 인간이 되어야지요. 결국 떳이있어야 하겠죠! (일동웃음)

### 教授陣 强化問題

▲司會=아까 학생들의 연구속에서 教授陣 강화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십니까?

▲閔內天=지금 모대학에서는 많은 돈을들여 「스카웃」(?)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를 있겠지요? 교수나 학생을 위해 설립된것인만큼 무엇인가 의문이갑니다.

▲延基榮=역시 재단을 위해 설립된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설립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財團과 學校運營은 分離돼야

▲金直泰=大學은 재단법인에의해 운영되는 이상 개인의것이 아닌 국민전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私學재단의 사유화를 없애는 경향을 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李龍範=불합리한 점은 많은 재단이 있다고 봅니다. 市場에 내보았자 30부도 채 못 팔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교수연구업적의 개인적 출판은 막대한 책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하게되면 산은 사실상 그 사람것이 되다시피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학교재단에서 손을 떠야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學校行政에 너무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총교수가 참여하고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논의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단과 학교 운영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재단은 스스로의 자제로 총장은 스스로의 직책과 권한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金直泰=理工系의 경우는 대개 理工系教授들이 연구발표율이 많습니다. 설사 교수개인이 출판하더라도 3백부정도는 발행하면 족한 정도로 압니다. 때문에 교수연구업적의 출판은 막대한 책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하게되면 산은 사실상 그 사람것이 되다시피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學校行政에 너무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총교수가 참여하고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논의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단과 학교 운영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재단은 스스로의 자제로 총장은 스스로의 직책과 권한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財團과 學校運營은 分離돼야

▲金直泰=大學은 재단법인에의해 운영되는 이상 개인의것이 아닌 국민전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私學재단의 사유화를 없애는 경향을 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李龍範=물론입니다. 생각해보시오. 교수들이 모두 박박하다면 학교에 옳수있는 학생은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교수나 학생이나 제각기 특색을 가진 개성적 인간이 되어야지요. 결국 떳이있어야 하겠죠! (일동웃음)

### 教授陣 强化問題

▲司會=아까 학생들의 연구속에서 教授陣 강화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십니까?

▲閔內天=지금 모대학에서는 많은 돈을들여 「스카웃」(?)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를 있겠지요? 교수나 학생을 위해 설립된것인만큼 무엇인가 의문이갑니다.

▲延基榮=역시 재단을 위해 설립된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설립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金直泰=理工系의 경우는 대개 理工系教授들이 연구발표율이 많습니다. 설사 교수개인이 출판하더라도 3백부정도는 발행하면 족한 정도로 압니다. 때문에 교수연구업적의 출판은 막대한 책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하게되면 산은 사실상 그 사람것이 되다시피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학교재단에서 손을 떠야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學校行政에 너무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총교수가 참여하고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논의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단과 학교 운영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재단은 스스로의 자제로 총장은 스스로의 직책과 권한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研究資料제공等 財政的 支援 緊要

▲金鎔貞=대우문제는 閔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教授님들이 꼭 해야할 많이 있다거나 참여할 일이 있다면 學校行政에도 과감히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李龍範=불합리한 점은 많은 재단이 있다고 봅니다. 市場에 내보았자 30부도 채 못 팔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교수연구업적의 개인적 출판은 막대한 책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하게되면 산은 사실상 그 사람것이 되다시피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학교재단에서 손을 떠야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學校行政에 너무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총교수가 참여하고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논의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단과 학교 운영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재단은 스스로의 자제로 총장은 스스로의 직책과 권한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財團과 學校運營은 分離돼야

▲金直泰=大學은 재단법인에의해 운영되는 이상 개인의것이 아닌 국민전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私學재단의 사유화를 없애는 경향을 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李龍範=물론입니다. 생각해보시오. 교수들이 모두 박박하다면 학교에 옳수있는 학생은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교수나 학생이나 제각기 특색을 가진 개성적 인간이 되어야지요. 결국 떳이있어야 하겠죠! (일동웃음)

### 教授陣 强化問題

▲司會=아까 학생들의 연구속에서 教授陣 강화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見解를 가지고 계십니까?

▲閔內天=지금 모대학에서는 많은 돈을들여 「스카웃」(?)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를 있겠지요? 교수나 학생을 위해 설립된것인만큼 무엇인가 의문이갑니다.

▲延基榮=역시 재단을 위해 설립된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설립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金直泰=理工系의 경우는 대개 理工系教授들이 연구발표율이 많습니다. 설사 교수개인이 출판하더라도 3백부정도는 발행하면 족한 정도로 압니다. 때문에 교수연구업적의

# 辛夕汀의 詩와 生涯

## 自然에 歸依한 牧歌的 詩人

## 思想的 根幹은 無爲와 從容

### 中央佛專 朴漢永門下서 佛敎와 詩作修業

### 牧歌的 哀歌에서 生命意志로

◇사진은 73년10월20일 大韓民國文化藝術賞을 수상한 故辛夕汀同門과 本紙記者와의 會見場面, 同下는 故人의 詩<내마음속에는>의 一節

湖 章 <同門詩人>

……○ 지난 七月 六日, 自然詩人 辛 ○……
……○ 夕汀은 六七年의 生涯의 문을닫 ○……
……○ 고 마침내 自然으로 돌아갔다。 ○……
……○ 一九○七年 全北 扶安仙縣里, 性 ○……
……○ 理學의 門中에 태어났으니 本名 ○……
……○ 은 錫正, 눈을 감은 곳은 全州 ○……
……○ 市 南老松洞의 비사벌초사에서 ○……
……○ 였다。修學時節과 몇번 안되는 ○……
……○ 을 나들이를 빼고는 生涯를 통 ○……
……○ 하여 鄕里를 지킨 셈이다。

李 丙 疇 <土博士·文學學部長·敎養學部敎授>

## 放學의 回想과 智慧와——

○…천진난만했던 소년시절을 더듬는다
○…는것은 실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그것이 不孝의 개구장이는
○…의 사연이라면 한결 진한 그리움을
○…드리우기 마련이라 문득 되살아나는
○…것이다。내가자란 곳은 서울의 근
○…교 花田이다。막내의 어리광을 송두
○…리째 누리며 어버이의 사랑을 독차
○…지했으니 사뭇 天下가 부럽지 않은
○…추억의 도령이다。

그 어버이가 가신지도 아마 10년이 가까운데 글쎄 이 不孝의 개구장이는 『이 더위에 글써 뉘, 방장기도 두고낫 놓고 도시 등 이 원고 독촉에 눈을 감으니 역시 자식은 품에 안았을때라시면 사실이 없듯 귓전을 울린다。

정말 즐거운 방학때이었다。기나긴 여름을 지루한 하룻날을 짓탈았다。원두막의 참외도 破閑이 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하루거리였다。그렇다고 비지 땀을 흘리며 책을 읽기에는 물논피자 좋이 쑤셔 배겨나질 못했다。큰개울에 가서 멱을 감는것도 한두번이오, 봉문재 뒷등산에 오르자니 땀이 원수였다。따라서 치느니 풋볼이오 받느니 캐치볼이었다。사랑으로 빚어진 어머니의수제비엔 하마 물리였고 알록박이 옥수수도 진력이 나서 두다 버린 바둑판옆에 주검처럼 굉개져 있었다。웬만해선 작은 사랑에 나들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얘, 그 바둑판은 치워라。행여 바둑쟁이가 돼선 쓰겠니…。』

정말 초단 보다도 얼한 꾸지람이였다。그 진한 노기에 말려 사족을 못 이 된은 이때 부지런히 글써 꽁부를 안한 뉘우침에서다。

原色의 太陽族이 범석인 가운데서 방학은 하루가 부산한 때다。오만상이쩌 푸려지는 리포트에 눈이 갈리기 없는 한여름이다。예전의 「唐詩」 따위가 귀로한 英詩가 무슨 희꿔이며 書誌說이 따윰일리가 없다。아무리 호통을 받는 「漢文」이지만 그 주눅을 다시 탈망정 우선 기지개부터 나는데야 도리가 없다。역시 방학이다。

그러나 방학은 참으로 즐은 티끌의 동인이다。굳이 과목을 局限하고 싶지는 않다。그것이 비록 다점에 그쳤대도 방학처럼 요긴한 동안은 없는 줄로 안다。尊攻에 시달리고 시험준비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앞의경우는 그에게서 詩的機倉을 잃게 했을지 모를 일이오, 또 뒤의경우는 그의 詩世界를 오늘의 辛夕汀에서 바꾸어 놓았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1924년부터 운명하는 그날까지 만 50년간 약 1천여 편의 作品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대개 4期로 나누어짐 속에 投入한 審美的인 「작은 집」 (1930년 23세의 弱冠에 笈從師하려 上京, 開運寺 大圓庵의 中央佛敎專門講院에 들어 石顚 朴漢永스님의 門下生이 되였으니, 이것이 그의 學院의 전부 간된 「從容」은, 「道常魚籃」를 31년에 창간한 海外文學派의 「文藝月刊」, 34년의 「文學」, 35년의 3詩集 「氷河」가 出版되는 56年까지의 3期에 그는 變身으로의 모색을 엿보이는 것이니, 그것이 過期的 傾向이라 할지라도, 소용돌이 치는 現實的 情熱의 變移의 위에 歷史意識을 정착하고자 한 몸부림이였다。

이 무렵의 詩篇에는 거의 관통하는 生命에의 意志를 표방하고 있으니, 1期는 첫출발부터 1936년까지로 잡아진다。「초롱」의 1939年까지로 잡아진다。「초롱」에는 「銀杏잎」, 「초롱」, 「秋風」이요 「동녘별」의 詩 5章 끝에 「이 땅에 살으리…」에 이른 근접간 자기다짐은 사실 그 후로도 辛夕汀에게서 끝날날 없었으니 「아지랑이 속에/ 靑梅에/ 햇새우 가듯/ 살고 싶으라」고 이어지고 있다。이런 추구는 그의 詩에일찍 없었던 悲壯美마저 여리게하 고독한 現代人에게 흥건한 감동

2期는 1936년의 第4시집 「山의 序曲」과 1939년의 第5詩集 「大바다를 向하여」를 포괄하는 後期의 작품들로 이루어진다。그는 여기서 일종의 歸依를 선언하고 있다。그것은 山에 歸依요 自然에서 歸依일 뿐 아니라 無爲와 從容에의 귀의로 점점 심화, 안정되고 있다。

「내 마음 속에는/ 山같이!/ 하던 <내>가 있다。/ 오늘도 山같이 山같이 늙어가는 <내>가 있다。」

—내마음속에는 三章— <全문> 본형이 <全문>의 리시즘의 延長이 아니다。그것은 오히려

「그 언젠가는 이 기름진 봄이/ 우리 눈물겨운 小作人의 후예/ 하여/ 드높은 역양가로 매마른 山河를 울리고,/ 미국 브리와 돌뿌리로 연명하던/ 그 서럽고 안쓰러운 이야기는/ 동녘 실핏줄/ 아득한 아득한 神話로 남겨두자。」

—歲暮의 神話—

면 그의 역사적 현실태에의 관심과 그로 인한 受難의 과정을 엿은 연후의 變身이였던것이다。

老子의 「弱其志 强其骨」을, 「세상살이에서의 욕심을 덜므로써 그 정신의 뼈대를 튼튼히 하여야, 辛夕汀의 後期의 永遠性의 像은 그대로 이 리얼리티와 완전히 一致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詩人이 사는 어느 時代가 어렵지 않을까 마는, 素朴한 情感과 애틋한 審美的인 情緖가 리얼리티라는 파도의 그 波狀공세를 받아 어떻게 변모하는 것인가 20세기의 3분2의 그 가장 어려웠던 韓國的 現實을 辛夕汀은 바로 거기에 해답의 하나를 몸소 보여주고 갔다。

後人은 살가詩人의 명복을빕니다。

## 沈默의 소리

### 〈吳學榮創作集〉

吳學榮創作集 『침묵의 소리』는 지난 6月25日에 발간, 全9篇의 小說로구며졌다。

吳同門 (國文科卒) 은 회곡 「젊은 의미」가 「現代文學」誌 (1957년度) 에 추천되면서 문단에데뷔, 이번에 첫 創作集인 『침묵의 소리』를 출간하게된 것이다。

1962년에는 「現代文學」에 단편소설 「염소」 (劇作家로서의 소설가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그동안 여러 잡지에 발표한 소설중에서 9篇을 골라 한권의 창작집으로 묶은 것이다。

여기에 실린 소설들은 대부분 主題와 素材가 희곡보다는 소설로 표현되는 것이 나으리라는 판단으로 구상된 작품들이다。이 9편의 소설속에는 각이 主題속에 내포되었다。

△現代文學社刊·410페이지·定價 1천2백원>

## 故 金憲純同門 遺詩集

## 「꽃잎 떨군 자리 마다」

金憲純 同門 (72년 哲學科卒) 의 遺詩集 「꽃잎 떨군자리마다」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많은 이웃들의 힘으로 역어졌다。

재학시 본 東大新聞社 取材部長을 역임한바 이는 故 金同門은 남달리 詩作에 정열을 바쳐오다가 臥病끝에불행하게도 먼저 갔으나 그가 남긴 遺作이 단행본의 결실을 본 것이다。

그가 남긴 詩는 총 1백여편이 훨씬 넘으나 여기에 실린 것은 약 60여편이 수록작품은 「東大新聞」에 발표된 것을 비롯, 각 대학교 교지지월부터 지금까지 쓴 것들이다。참고로작품 끝에는 발표지가 소개되어 있다。

金同門은 생전에 詩人으로 등단은 안했지만 未堂 徐廷柱교수님의 「序辭」로부터 不世出의 훌륭한 天才, 女流詩人임을 認證받았다。

未堂선생은 즉 「不世出의同門天才 閨秀詩人 故 金憲純양은 처음보는 出發한 天才 女流詩人이며 그 진력나는 「醴泉銘」을 쓰라 셨다。東坡를 쓰다가 혼이 났고, 顔魯公을 쓰다가 붓을 뺏긴 극성이셨다。

글씨는 엄연히 「書道」라며 性格의 가늠대라 가르치셨다。특히 歐陽詢을 즐겨 쓰다보면 글씨의 妙諦가 절로 터 득된다고 타이르셨다。이제 평각사록 한 줄을 표백하고 있다。詩集 「氷河」부터 第1詩集 「초롱」의 1939年까지로 잡아진다。「초롱」에는 「銀杏잎」, 「초롱」, 「秋風」의 2章끝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동 3部 36편이 收錄되어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나이브한 리리시즘이 主調를 이루고 있다。

자연스런 감정의 流露라는 점에서 韓국적드의 로맨티시즘에서 깨끗하고도 하겠으나 韓국적드의 그 적극적인 自然의 一部로 看做하는 自然의 觀에 비하면 辛夕汀의 自然觀은 客觀的이요 幻影의 仙童子로서 그의 나이을 점작할 수 없을 만큼의 非現實的인 이미지로 시종되고 있다。「작은 집」은 어느 베일을 씌어보이지않는 것이다。

이 超越的인 自然觀이나 審美的인 感覺은 그의第2期 半의 詩篇들에서 牧歌的인 哀歌로 沈潛하는 것이니 그것이 1940年代 前後의 詩篇에서 더욱 暗黑期라 부르는 1940年代 前後의 詩篇에서 牧歌的인 哀歌로 沈潛하는 것이니 그것이 1947年의 〈을 牧歌〉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러나 1945年에서부터 第3詩集 〈氷河〉가 出版되는 1956年까지의 3期에 그는 뜻밖에 變身으로의 모색을 엿보이는 것이니, 그것이 過期的 傾向이라 할지라도, 소용돌이 치는 現實的 情熱의 變移의 위에 歷史意識을 정착하고자 한 몸부림이였다。

이 무렵의 詩篇에는 거의 관통하는 生命에의 意志를 표방하고 있으니, 1期는 첫출발부터 1936년까지로 잡아진다。

# 盛夏를 이기는 젊음의 挑戰

## 修錬·農村奉仕活動에 5백餘名 參加

夏季放學을 맞아 각 단체및 서클에서는 봉사활동및 수련대회를 실시중이다. 방학중 대학생의 두드러진 활동은 하기수련대회, 農村奉仕活動등이다.

대학의 사명이 연구·교육·사회봉사라는 諸機能 특히 배운 지식의 활용이 바람직한 자세라는 점을 감안할때 방학기간을 효율적으로 善用하는것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4년간의 大學生活을 지식터득이나 인격도야이외에도 창조적인 면과 지식의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 방학이 가지는 의의는 크며, 이에 임하는 대학인의 자세 또한 바람직해야할 것이다.

### ◇奉仕活動

대학생의 協同精神과 奉仕精神을 기르는한편 학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한편 알찬 열매를 거두고있다.

특히 지난 72년부터는 「農村實習」이 農科系학생의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그 규모나 활동내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올해는 農研部를 비롯한 8개 써클에서 총 2백90여명이 봉사활동 등에 나섰다.

주요 봉사활동내용으로는 근로봉사, 위생시설, 시사계몽, 부업및 생활개선, 교육봉사, 마을문고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펴게된다.

「農研部」는 지난 18일부터 전북 정읍군 내장면 표암리 계화부락에서 봉사대원 1백20명이 참가, 봉사활동을 폈다.

ELF에서도 근로봉사활동비롯, 4H부의 실질적 활동개선, 교육봉사, 문화탐방전개, 도로확장과 아울러 도서실을 설치, 그동안 수집해온 1천여권의 도서를 기증하게 된다. 특히 ELF는 예년의 봉사활동방식을 지양, 이번에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농촌과도시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한다.

東大 사진클럽은 8월1일부터 7일까지 충남 서산군 안면면 중장리 1구에서 「내수구복구, 우물정비, 위생봉사와 아울러주민을 위한 영화상영, 청년반, 청년반으로구분, 부녀반, 청년반, 장년반으로 편성, 이들 각반에게 극기훈련의 정립에 주력하게된다.

이들 각써클의 봉사활동에 따라 학생처에서는 참가자의 자세와 활동상을 수시점검, 우수한 점, 솔선수범을 촉구한바있다.

참가자는 ①農村의 實情에 맞는 복장을 갖출 것이며, 言語와 行動에 細心한 주의를 기울일것 ②지도교수, 각팀회장을 주축으로 사전토의·現地수시토의와 硏究를 할것 ③農村에 있는 각종조직체를 연구·검토하여 부락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장할것 ④住民의 소득증대, 특히 영세농가의 生活向上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할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 ◇「리더쉽·웍샵」

학생들에게 「리더」로서의 資質을 함양시키기 위한 EDPS特講을 지난 7월11일부터 실시, 앞으로 2개월단위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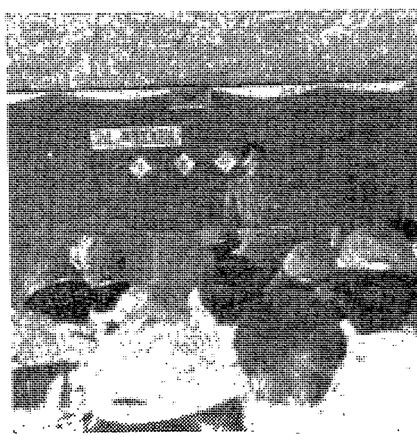
또한 師範大學에서는 日語및 敎育學講座를 실시하고 있다.

夏期敎育講座는 7월8일부터 공휴일을 제외, 26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번 하기교육강좌의 강사는 본교 金容玉교수를비롯, 外部 저명인사를 초청, 4학년을 對象으로 실시하였다.

講座科目은 敎育學槪論, 교육평가의 8개과목이다.

또한 日語特講은 1학기중에 實施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초급과 中級으로 나누어 1일 2시간씩 講義하고있다.



◇奉仕活動 발대식 광경

◇「리더 쉽·웍 샵」 광경

## 奉仕活動에 8個 써클
## 「리더쉽·웍샵」, 討論 위주
## 「프로젝트」 指導者像 定立

### 各써클 夏季奉仕活動 計劃表

| 써클명 | 활동기간 | 活動場所 | 指導敎授 | 參加人員 |
|---|---|---|---|---|
| 農研部 | 7月18日~28日 | 전북정읍군내장면 | 李 奭 東 | 120명 |
| ELF | 7月28日~8月5日 | 강원화천군상서면 | 邢 基 柱 | 37명 |
| KUSA | 7月21日~31日 | 충남공주군우성면 | 睦 哲 宇 | 35〃 |
| 권 | 7月20日~30日 | 전북정읍군내장면 | 林 奎 孫 | 15〃 |
| 공연 문 제 | 7月15日~22日 | 전북 〃 고부면 | 閔 丙 天 | 15〃 |
| PTP | 7月20日~30日 | 강원평주군연곡면 | 吳 國 根 | 30〃 |
| 국어 웅변 | 7月25日~8月4日 | 경기포천군오파리 | 金 聖 培 | 15〃 |
| 東大사진클럽 | 8月1日~8月7日 | 충남서산군안면도 | 李 鐵 昌 | 23〃 |

그 일정및 코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일(22일·月) 서울→춘천→홍천→百潭寺=李丙疇 敎養學部長 일행 인솔자들의 강좌▲제2일(23일·火) 百潭寺→수렬동→쌍룡→鳳頂庵=사리탑참배 Camp Fire ▲제3일(24일·水) ①鳳頂庵→大靑峰→화채봉→칠성봉→권금성=권금산장(유창식同門과 談) ▲제4일(25일·木) 권금성→神興寺→저조암=나산월장 Camp Fire ▲제5일(26일·金) 낙산월장→洛山寺→보타암=나산월장=최원경 스님 강좌 해양기본훈련(수영및 캠프파이어) ▲제6일(27일·土) 東國大학생수련장(洛山월장)=自由토론, 해양훈련, 캠프파이어 ▲제7일(28일·日) 하계수련장(洛山월장)=수료식 해산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기간중에는 李丙疇 敎養學部長 및 지도교수 스님들의 敎養강좌도 있었다. 이번 지도교수의 교양강좌에서는 學校生活을 벗어나 교수와 학생간의 「對話단절」이 있다고 되는데있어서 큰意義가 있었다. 바야흐로 東國에는 中興의 물결이 다부지게 일고있다.

「길을 여는 코끼리」의 깃발을 앞세워 우렁찬 福士들 뒤기에 三寶의 언덕이 들끓는다.

「프로젝트 74」는 비단 學生의 발버둥은 아니다. 그것은 民族的 사명의 실천이어야 한다. 「길을 여는 코끼리」는 5천東國人의 「캐치프레이즈」이어야한다. 그것은 跳躍하는 東國을 위한 前進의 나팔소리다. 五千 東國人의 새 世代를 개척하는 우렁찬 외침이어야 한다.

## 李總長 就任祝賀宴 성황

### "母校發展은 同門協助로"

26日, 同窓會주최

제8대總長 李瑄根博士就任祝賀宴이 동창회주최로 26일 오후7시부터 世宗호텔 해금강홀에서 3백여명의 同門과 內外貴賓이 참석한가운데 盛大히 개최되었다.

이날 축하연은 崔載九同窓會長의 인사에 이어 新任 李總長에게 祝賀牌및동창회 特別會員배지 증정, 李瑄根총장의 축사, 林芳鉉大統領特別補佐官의 축사, 李총장의 答辭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李總長은 答辭에서 「私立大學의 發展은 同門들에게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東大同門들의 積極的인 協助와 團結로 東大建設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주기를 바란다고

李總長은 東大講堂에 태극기를 중심으로 卍字庶와 東大庶가 결려있는 깃발을 참으로 감명깊었다고 말하고 교수들의 生成原理로서 新羅時代이래 佛敎와도 깊다고 말했다. 文

## 農村實習 評價會

### 農大 科別로 보고 발표

工科大學(學長·沈薰燁박사) 에서 매년 하기방학을 이용, 農業現場의 실정을 파악하고 생산조업의 經驗을 찾게하며 生産技術과 과정을 관찰, 분석, 습득케 하기위해 실시하는 현장실습 기간이 지난 10일부터 6일까지 8일간 실시되었다.

이와관련, 工科大는 현장실습에 앞서 지난 6월17일 현장실습지침서를 발간하고, 20일부터 29일까지 4개 주일과정으로 東大庶가 결려있는 58개업체에 공대 재학생을 파견,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7월4일과 5일에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6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

상공부, 건설부, 농수산부 등 정부부처에서 수석 전하는 업체가운데 현재 확정된 58개업체에 공대 재학생들이 분산, 파견되어 실습하게 된다.

### 辛夕汀 同門 별세

### 牧歌詩人으로 활약

牧歌詩人 辛夕汀(본명·錫正) 이 지난 6월24일 오후 7시 30분 金州市 노송동 175의 27번지에서 지병인 고혈압으로 別世했다. 향년 68세.

1933년 中央佛專文化藝術科를 수석졸업한 후 同門 金北杓安出生 ▲1907년 金北杓安出生 ▲1930~33년 中央佛專修了 ▲1936년 朝鮮日報新春文藝에 詩 「눈」 「봄비」 「多獨의 노래」 등이 당선되어 詩壇에 데뷔, 68년도에 韓國文學賞과 73년도에 韓國文化藝術賞을 수상한 바있다. ◇略歷

### 同門동정

▲崔載九회장(51·國·극회의원)=1개월간 동남아지역 문화사절로 파견 ▲李丙疇(53·敎養)=미국 Rockefeller 재단 초청으로 6개월간 연수 ▲尹天泳사무국장(53·敎養)=1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 ▲李瑄根박사(27·本)=27일 山岳部(部長·이동훈·경제3)의 하계등반대장으로 지리산 천왕봉에서 실시되는 1박2일 코스에 참가 ▲李昌培·洪淳鈺敎授(53·敎養)=交流敎授로 오는 2학기에 美國 Rice大學에 출강 ▲金容玉교수(53·敎養)=7월11일부터 실시, 앞으로 2개월단위로 계속 진행할 예정 ▲金東旭교수(53·敎養)=8월11일부터 실시, 앞으로 2개월단위로 계속 진행할 예정 ▲金容玉교수(53·敎養)=7

# 제8대 총선 최종대변인 확정을 대폭환영한다

제1면 사설

## 제8대 총선 최종대변인 확정을 대폭환영한다

제1면 사설

## 제8대 총선 최종대변인 확정을 대폭환영한다

제1면 사설

부산 동구 초량1178 ☎27·7410 (文四) ④5040

# 제8대 총선 최종대변인 확정을 대폭환영한다

제1면 사설

부산 동구 초량1178 ☎27·7410 (文四) ④5040

# 제8대 총선 최종대변인 확정을 대폭환영한다

제1면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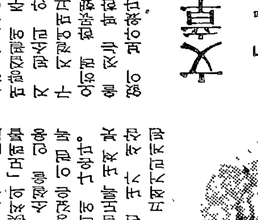
부산 동구 초량1178 ☎27·7410 (文四) ④5040

第588·9號 1955年10月13日第3種郵便物認可·〈수표번호100〉



# 부산의 하늘과 땅

<24>



# 소매치기 활개

## 도난 신고 그 절반도 안돼

## 文化·社會·學藝·藝術·體育·敎育·人事·動靜

## 馬 海 鉄